

# 17세기(明末) 마테오 리치(利瑪竇)의 중국전교와 유교관

— 그의 행적, 저술 그리고 유교관을 중심으로 —

송 영 배  
서울대 철학과 교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는 예수회소속 이태리인 선교사요, 중국 최초의 천주교회 창립자이며, 17세기이래 동서 문명교류(즉 전통적 중국문화권 내에 이른바 ‘서학’(西學)의 형성과 아울러 중국문명의 서구 계몽주의사조에 대한 영향)를 촉발한 위대한 문화매개와 융합의 사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 출생과 교육:

리치는 당시 로마의 교황령에 속한 중부 이탈리아의 마체라타(Macerata)에서 출생하였다(1552.10.6). 16세에 부친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로 갔으나 법학공부를 중도 포기하고, 예수회 수련원 산트 안드레아(Sant' Andrea)에 들어간다(1571.8.15). 일년 뒤 로마대학(Roman College)에 입학하여 공부한다. 당시 유명한 수학자 클라비우스(Christopher Clavius)로부터 수재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예수회의 동양전교사업에 마음을 정하고, 당시 인도로의 정기항로는 일년에 단한번 오직 풀투갈의 리스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1577.5.18). 다음해 봄 출항할 때까지 리스본의 코임브라(Coimbra)대학에서 수학한다. 1578년 봄에 리스본

을 출항하여 당시 천주교 동방전교의 중심지인 인도의 고아(Goa)에 도착한다(1578.9.13).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코친(Cochin)에서 사제서품을 받는다(1580.7.25). 드디어 1582년 마카오로 출항한다.

### 중국에 온 ‘서양승려’[西僧]:

중국과 서양과의 문명 교섭은 사실 기원전 3세기 한(漢)제국의 성립이래 중앙아시아, 즉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과의 교역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기스칸(1162-1227)의 대정벌이 돌출적인 특징이었다면, 이 시대를 마감하는 동서 교섭의 위대한 증거인은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元, 1271-1368)제국의 멸망과 함께 이러한 북방경로의 카라반여행을 통한 동서교섭은 그(세계사적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그 대신 해상무역의 발전과 함께 해로를 통한 동서교섭이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폴투갈인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1469?-1524)의 인도항로발견(1497)은 현대사의 시작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효시라고 하겠다. 그러나 넓은 동아시아대륙에서 몇 천년 간 자체의 찬란한 문명과 전통을 지녀온 중국은 명조(明朝, 1368-1644)에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의 나라’[中國]로 당연하게 확신하는 중국문화중심주의적 세계관 속에 완고하게 젖어 있었다. 중국문명만이 ‘화’(華) 즉 문화의 꽃이요, 이 문명의 교화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도대체 그것과 이질적인 먼 변방의 문명은 ‘이’(夷) 즉 야만의 상태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중국을 지도하는 문화적 엘리트, 즉 유림(儒林)들이나 관료들은 화승총을 들고 해안을 노략질하는 폴투갈인이나 왜구(倭寇)들 모두를 야만인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폴투갈인이나 기타 서구의 스페인이나 헝가리상인들의 활동은 마카오와, 광주(廣州, ‘꽝쪼우’)에서의 년 2회에 걸친 시장교역에만 제한되어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었을뿐, 중국 내륙 전역에 대한 그들의 접근은 거의 완전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

나 당시 예수회의 동방전교 총책임자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Franciscus Xaverius, 1506-1552)는 그의 성공적인 일본전교에 이어 강력하게 중국전교를 추진하는 도중 중국내륙에 발을 딛어보지도 못하고 발병하여 광주(廣州)근해의 상천(上川, ‘쌍추안’)도에서 사망하였다. 예수회 동방전교의 순안사(巡按使, Visitator)가 된 발리냐노(Alessandro Valignano)는 그의 유지를 이어 중국의 언어, 관습과 세계관을 철저하게 습득한 탁월한 인재를 통하여 당시 폐쇄된 ‘중화제국’을 복음화하려는 매우 야심적인 계획을 수행해 나갔다. 그는 먼저 고아로 부터 루지에리(Michele Ruggieri)를 1579년 마카오로 불렀다. 그로 하여금 삼년여에 걸쳐서 중국어와 한문을 열심히 배우게 하면서 중국인들과의 몇가지 예비적인 접촉시도를 해보게 한다. 이런 무수한 시도들을 통하여 중국관현들의 호의를 얻게된다. 발리냐노는 마침내 루지에리와 로마와 고아에서 동학한 마테오 리치를 마카오로 불러서(1582.8.7), 이 둘로 하여금 중국전교사업을 맡게한다. 이들은 가진 노력을 통해 마침내 당시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양성의 겸임총독인 진서(陳瑞)의 이해와 당시의 성도 조경(肇慶, ‘짜오칭’)의 지부(知府)인 왕반(王泮)의 호의를 얻어서 드디어 1583년 9월 10일(후에 중국전교사의 기념일이 됨)에 그곳 조경(肇慶)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 최초의 두 예수회선교사 루지에리와 리치의 최대의 과제는 결국 자신들이 노략질이나 폭력을 일삼는 폴투갈이나 카스틸리아(스페인)에서 온 상인(즉 ‘야만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사실 언제라도 중국의 관현들에 의해 가차없이 추방당할 수 있는 불안과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열심히 중국의 경전들과 관습들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있을 때마다 당시 서방의 최고 명품들을 지부(知府)나 총독(總督)에게 선사하므로써,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우수한 서방의 기기(機器)를 제시함으로써, 자기들이 결코 ‘야만인’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국인들로부터 이상한 혐오감을 사지 않기위해 그들은 우선,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전교경험을 토대로, 불교식의 복장과 삭발을 한 서방의 승려[西僧]로 행동을 했고, 따라서 그들은 조경(肇慶)에

서 중국총독의 윤허와 도움으로 최초로 세운 천주교회의 이름을 ‘선화사’(僊化寺)라고 하였다.

### 서사[西士]로서의 학문과 전교활동:

리치가 중국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제작해 낸 특히 『산해만국여지전도』(山海萬國輿地全圖)는 종래의 중국중심의 ‘천하관’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요, 중국의 문화와 위치를 서양의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인식의 지평을 제시하는 첫 발이었던 셈이다. 사실 이로 부터 중국 전통문화 속에 “서학”(西學)이 발붙일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리치의 중국학자들과의 교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가 조경(肇慶)에 부임한 신임 총독에 의해 그곳에서 쫓겨나서 좀더 내륙의 소주(韶州, ‘싸오조우’)에 정착(1589.8.26)하게 된 이후의 일이다. 리치는 그 곳에서 자기로 부터 연금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중국의 문인 구태소(瞿太素, ‘취 타이쑤’)를 최초의 천주교교화인으로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리치는 그에게 천주교의 교리 외에 서양의 수학, 기하학, 역학 등을 가르쳤으며, 동시에 그로 부터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배우면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주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태소의 제안에 따라 당시 중국사회의 지도층인 유림(儒林)들과의 자유로운 접촉과 교류를 위하여, 불교식의 승복을 벗고 중국에 온지 12년뒤인 1594년부터는 로마본부의 허락을 얻어 유림의 복장을 하고 ‘리 마또우’(利瑪竇, 리치 마테오의 漢音譯)라는 이름 외에 별도로 문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호(號)를 서태(西泰)라 짓고 **서방에서 온 학자[西士]**의 신분으로 중국 문인들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다. 리치는 이들 중국문인들에게 정밀한 지도, 지구의, 천체의(天體儀)를 제작해 보이는 일 외에 그의 한문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한문으로 저술함으로써 그의 전교활동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런 학문과 저술 활동을 통하여 리치는 많은 중국 문인들을 지기로 만들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그에게 우호적인 중국 문인들의 도움으로 1595년에는 중국의 내륙의 요로인 남창(南昌, ‘난창’)에 전교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 발리냐노가 리치를 예수회중국전교책임자로 임명함(1597.8.4)으로써, 그는 독자적으로 중국 전교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1598년 남경(南京, ‘난징’)의 예부상서(禮部尙書) 왕충명(王忠銘, ‘왕쭝밍’)을 수행하여 북경에 가서 황제를 알현하고 조공을 바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남경으로 다시 돌아와 전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유교경전이나 효(孝)관념에 근거하여 중국전래의 <천>(天) 또는 <상제>(上帝, 하느님)관념과 연관하여 천주교의 하느님을 <천주>(天主)라 설명하였다. 그는 ‘천주교’의 교리란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과 윤리관에 적대적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유교적인 관념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하는 보유론(補儒論)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이와같이 유교적 세계관에 타협적인 그리스도교호교론을 편으로써 중국 지식인[士大夫]들의 일부를 그리스도교에 귀의시킬 수 있는 대단한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다. 리치는 그가 중국에서 활동한지 19년만에, 그의 나이 49세에 마침내 그 와 예수회가 간절히 목표하던 북경에 입성하여 명(明) 신종(神宗) 황제(萬曆, 1573-1619년간)를 알현하게 된다. 리치는 중국 황제에게 정교한 자명종(自鳴鍾), 프리즘, 클라비어코드, 원색의 천주상과 성모상 등등 당시 진귀한 서방의 진품들을 조공하고 결국 자명종의 수선이나 클라비어코드의 교수, 또는 천문역학에 관한 일로 인해 명황궁[紫禁城]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북경에서의 거주를 허락받게 되었다. 리치의 이런 남경에 이은 북경의 “정복”에 대하여 발리냐노는 너무나 환희에 찬 보고의 편지(1603. 11.12)를 로마의 예수회본부에 올렸다. “이런 행운이 백년 안에 우리에게 오면 좋겠다는 것이 그때 까지 우리들이 꿈꾸어 오던 일이였다.” 당시 자아독존적인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전혀 생소한 서방의 기독교진리를 성공적으로 전교한 리치의 업적은 사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교활동만큼이나 지난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먼 서방에서 온 이국선교사로서 당대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인 서광계(徐光啓, 1562-1633)나 이지조(李之藻, 1565-1630) 등을 천주교로 개종시킨 사실은 리치의

사상과 신념의 크기가 결국 동서문화의 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을 만큼 대단히 큰 것이였음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중국의 최고급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서양의 수학과 천문지식 뿐만아니라 중국문명에 이미 훈습된 필치로 서양의 그리스도교리를 전파하였다. 바로 이점에서 이지(李贊, 1527-1602), 황종희(黃宗羲, 1609-1695), 왕부지(王夫之, 1619-92) 등과 같은 명 말의 대표적인 탁월한 철학자들은, 그의 교설에 우호적이든 혹은 비판적이든, 모두 서방학자 리치[利西泰子, 즉 利瑪竇]의 이와같은 학문적 업적을 증언하고 있다. 그가 58세의 나이로 북경에서 사망(1610.5.11)하자 신종(新宗)황제는 그에게 북경성 밖에 장지를 하사하고 그의 덕을 기렸다.

### 저술업적:

400여년전 완전히 봉쇄된 중국지역에 들어가 서구적 학문을 바탕으로 오로지 중국문화를 배우고 또 그것에 탁월하게 적응함으로써 동서문명융합의 새지평을 열 수 있었던 리치의 가상한 업적은 그의 초인적인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화된 당시 중국 지성계의 열려진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성취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대 성공의 배경적 이유는 또한 — 그 당시 세계문명 어디에도 — 찾아볼 수 없었던 당대 중국의 높은 인쇄문화와 광범한 독서 문화층의 절대적 지배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사실 리치의 활동과 업적은 이렇게 발달된 당대 중국의 높은 문화수준과 목판 인쇄술에 의한 용이한 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의한 것이었다. 새로운 관념 및 지식의 유포에 주요한 수단이 되었던 목판 인쇄술의 뛰어난 역할은, 리치를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중국에 온 서양선교사들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최대로 이용하였다. 리치는 그의 회고록에서 인쇄된 서적 덕택에 “기독교법의 명망이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널리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왕조[明朝]에서는 책읽기가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적에 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들의 모든 교파는 민간에 대한 설교나 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적을 통해서 전파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점은 우리들이 기독교도들에게 필요한 기도문들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인쇄된 기독교 교리서를 그들이 스스로 읽거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들로 하여금 그것을 낭독시킴으로써, 그들은 즉각 그 기도문들을 암기하였기 때문이며, 결코 그들 중에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Gernet, p.16) 리치가 중국에 와서 활동하다 죽기까지(1582-1610) 28년동안 그는 “사전의 편찬과 『사서』(四書)의 번역을 비롯해서 종교와 천문 그리고 지리와 수학 등 전교에 도움이 될만한 저술들을 한문으로 이십여권이나”(Cronin, 이기반 번역, 318 쪽) 저술하였다. 이중에서 그 유명한 건륭(乾隆, 1736-1795)년 간에 수집정리된 방대한 량의 『사고전서 총목』(四庫全書總目)에 수록된 리치의 저술은 다음과 같다. 『건곤체의』(乾坤體義)2권; 『동문산지』(同文算指)전편(前篇)2권, 통편(通編)8권, 利瑪竇역; 『기하원본』(幾何原本)6권, 利瑪竇역; 『변학유독』(辨學遺牘)1권; 『이십오언』(二十五言)1권; 『천주실의』(天主實義)2권; 『기인십편』(畸人十編)2권(부록『서금곡의』(西琴曲意)1권); 『교우론』(交友論)1권 등이다.

이 중에서 전통적인 중국문화권의 지식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혀졌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저술은 『천주실의』라고 하겠다. 이 책은 수세기에 걸쳐 중국은 물론 조선, 월남, 일본 등에서 까지 광범위하게 읽혀졌으며, 그 발행붓수만도 20여만부를 헤아린다.

사실 리치는 1583년 중국에 도착한 이래 10년 동안 중국의 문화 풍토에 맞는 새로운 교리서를 편찬할 생각으로 우선 중국의 고전들을 연구하여야 했다. <<*Vera et brevis divinarum rerum expositio*, 天主述要>>(1581)라는 라틴어본을 따른 『천주성교실록』(天主聖教實錄)이라는 첫번째 교리서가 1584년에 조경(肇慶)에서 서둘러 출판되었다. 이 교리서의 초고가 1596년에 완성되었고 그 다음해에 라틴어번역본이 당시의 일본 주교인 체르게이라(Luis

Cerqueira)에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초고와는 상당히 체제가 다른 최종판은 1601년에야 겨우 완성되었다. 이 최종판[즉 『天主實義』]은 풍응경(馮應京, 1555-1606)이라는 탁월한 문인에 의해 문체가 윤색되었다. 리치는 1599-1601년 사이에 그 자신이 남경이나 북경에서 많은 유학자들이나 불교 승려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은 체험들을 그 책 속에서 피력하였다. 이 저작은 고아(Goa, 인도)의 천주교당국으로부터 출판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1604년(혹은 1603년 12월)에야 비로소 목판 인쇄에 부치게 되었다. 이 책은 『천주실의』(天主實義)라는 이름으로 그 후 여러번에 걸쳐 재판되었다. 리치가 설명하고 있듯이 이 저작은 실제 교리서가 아니었다. 사실상 이 저작은 자연이성(natural reasons)으로 입증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영혼의 불멸, 천당과 지옥의 존재, 등에만 관계되어 있다고 리치는 말하였다. 그 책의 저자는 동시에 공개적으로 불교와 도교의 관념을 비판 배격하는데 힘을 쏟았으며, 좀 더 암시적인 방식으로 고금(古今)의 유교적인 관념 자체까지도 비판했다.(Gernet, pp.17-18) 『천주실의』의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권:

- 1) 천주(天主)가 처음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가 그것들을 주재하고 구원하는 일: 천주가 존재하시는 증거들.
- 2) 세인(世人)들이 천주를 알아보지 못함을 논함. 리치의 도교와 불교의 <무>(無)와 공(空)에 대한 논박.
- 3) 동물의 영혼과는 다른 인간 영혼의 불멸.
- 4) 귀신들이나 인간의 영혼과 연관된 잘못된 관념들을 반박하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의 실체[즉 氣]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설명함.

#### 제2권:

- 5) 육도윤회(六道輪回)나 살생(殺生) 금지 같은 불교의 허황된 이론을 비판하고, 금식의 참뜻을 밝힘.
- 6) (행위를 선하게도 악하게도 할 수 있는) 인간의 의도(intention)는 소멸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사후(死後)에는 반드시 살아서 행한 선악에 따른 천당의 행복과 지옥의 불행의 응징이 있

다는 점.

- 7) 사람의 본성은(그것이 이성과 동일시 될 때) 근본적으로 선임을 제시함.
- 8) 서양의 도덕 관념에 따라서 사제들의 독신과 예수[天主]의 현세 강생을 논함.

『천주실의』 외에 리치의 최후의 한문저작인 『기인십편』(1608)에는 동서문명을 융합한 그의 완숙한 정신과 신앙의 경지가 들어나고 있다. 『사고전서총목』에는 다음과 같은 해제가 실려 있다. “열편 모두 문답식으로 천주교의를 전개하고 있다. 1편 사람들은 지나간 나 이[세월]가 아직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2편 현세는 잠시 머물다갈 뿐이다; 3편은 늘 죽을 때를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함이 길하다; 4편 늘 죽을 때를 생각하고 죽음의 심판에 대비하라; 5편 군자는 말 수가 적고 무언(無言)하고자 한다; 6편 금식의 본뜻은 살생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7편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물어 허물이 없게 하라; 8편 선악의 보응은 죽고난 다음(영혼이 받는 것이다); 9편 미래를 헛되이 찾으면 갑자기 불행을 만나 죽게 된다; 10편 부자이면서 인색한 것은 가난한 것보다 더 괴롭다. 언론전개가 장대하며 거침없는 달변이여서 사뭇 설득력이 있다.”(『四庫全書總目』, 上권, 1080쪽)

이런 한문저작 외에 리치는 자기가 얼마 못 살 것을 직감하고 1609년부터 마지막의 심혈을 다하여 예수회중국전교역사의 전말을 이탈리아로 집필하였다. 이것이 바로 *Della entrata della Compagnia di Gesù e Christianità nella Cina*(『예수회와 천주교의 중국진입』)이라는 표제가 달린 마테오 리치의 수고(手稿)이다. 플랑드르 출신의 예수회수사 니꼬라 뜨리골(Nicolas Trigault)은 1610년 말에 중국에 도착해서, 이 수고를 가지고 1613년에 마카오에서 로마로 돌아왔다. 이 수고는 5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1장)가 요약되어 있고, 이어서 1582년 중국에서의 예수회 전교 시작부터 저자[Ricci]가 북경에서 1610년 5월 11일 죽기 몇 달전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614년에 로마에

도착한 이 원고는, 롱고바르도(Longobardo, 龍華氏)신부, 바논(Vagnone, 王豐肅)신부 및 카타네오(Cattaneo, 郭居靜)신부가 각각 그들의 중국거주에 대한 포르투갈어로 쓴 보고문들과 우르시스(Sabatino de Ursis, 熊三拔)신부가 라틴어로 쓴 1610년과 1611년 도의 서간문의 발췌글 등을 바탕으로 하여, 트리골 신부 자신에 의해 완간되었다. 그러나 리치의 이탈리아어원본이 1909년에 다시 발견되었다. 그 후 몇년에 걸쳐 리치의 이 원문원고는 중국에 건너간 최초의 두 선교사, 루지에리(羅明堅)와 리치 간의 상호통신문과 함께, 벤투리(Tacchi Venturi)의 감수를 받아, <<Opere storiche del P. Matteo Ricci>>(『마테오 리치신부의 역사저작』)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1942-49년에 걸쳐서, 리치의 원본이 이 통신문 없이 다만 더욱 풍부한 주석과 인명(人名)고증을 거쳐서, 엘리아(Pasquale d'Elia)에 의해 <<Fonti Ricciane>> [리치 전집, 전3권]으로 출판되었다.(Gernet, p.17) 최근에 이탈리아어 원본으로부터 모든 자세한 고증을 거친 중국어 완역본 <<이마두전집>>(利瑪竇全集, 총4권)이 대만에서 1986년에 출판되었다.

### 유교관:

우리는 이제 끝으로, 마테오 리치가 서양과는 전혀 다른 이질문화권인 중국에 와서 천주교교리를 성공적으로 전파한 그의 천주교 전교활동을, 요컨대, ‘천주교교리의 유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조화적인 적응’(the Accommodation of Christianity to Confucianism)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리치가 이해한 중국의 문화, 특히 유교사상은 ‘자연의 광명’(*lumen naturale*)에 의해 상당히 개명되고 발전된 것이였다. 그가 구태소(瞿太素)로부터 유교의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배우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유교에 대한 그의 이런 심증은 더욱 확실해졌다. 유교는 다른 이교(특히 불교, 도교

등)와는 달리 엄격한 의미의 종파(*una legge formata*)가 아니라, 개인의 덕성이나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려는 지식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천주교에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P.A.Rule, p.46) 사실 유교는 기독교교리와 대비해 볼때, 여러 면에서 애매하여, 어떤 것들은 천주교교리와 완전히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리치는 생각했다.(P.A.Rule, p.28)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아예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리치는 “서구인들이 알고있는 이교도들 가운데 고대의 초기문명기에 중국민족보다 오류를 범하지 않은 민족을 모른다”고 말하였다. 중국역사의 초기부터 그들의 책에는 그들이 인정하고 숭배한 최고의 유일신이 기록되어있고, 그를 ‘上帝’ 또는 ‘天’이라고 불렀으며, 또한 만유를 주재하는 이 ‘天’은 악인에게 징벌을 선인에게 상급을 준다고 믿었으며, 중국의 고대인들은 영혼불멸에 대하여도 별반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시유학(原始儒學)에서는 이와 같이 원시적인 자연이성에 의해 이미 천주교의 진리가 알려졌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후대에 서방(인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유교를 오염시키므로써 후대의 문인들이 창조설과 영혼불멸을 부인하고 래세의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으며, 신을 섬기는 성직자(聖職者)계층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경문도 민멸되었으며, 다만 상제(上帝)에게 제사드리는 것만은 오직 황제의 특권으로 귀속되어버렸다는 것이다.(孫尙揚, 48-9 쪽)

리치는 고대 중국인들의 <상제>(上帝) 또는 <천>(天)의 관념에 인격신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천주교의 <천주>(天主)의 관념과 일치시켜서 설명하였다. 리치에 의하면, 유교는 ‘자연이성’에 근거하는 윤리체계나 사회철학이거나 자연종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천주의 관념이나 현세의 인간과 내세의 삶 등에 대한 천주교의 기본교리(Christianity)는 결코 생소하고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중국 고대의 유자(儒者)들에 의해 설파되어졌던 것을 다시 환기시킬뿐(P.A. Rule, p.34)이라고 중국의 문인들에게 말

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앞서 언급한 『천주실의』(天主實義)이다.

또한 리치는 로마에 있는 예수회총장이나 교황에게 중국의 초기의(유교적) 가르침과 천주교의 교리는 사실 서로 합치할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중국의 전교는 개별적으로 몇 사람을 천주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 확신이 설득될 경우, 중국의 전체가 하루아침에 복음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세계관에는 원래 영혼과 육체의 이원적 구분이나 우주의 창조설이 없고, 이 실제로 영원히 변화 변동하는 우주적 실체를 초월해 있는 또 다른 초월세계로의 이분법적 구별이 없기 때문에, 리치는 이런 후대 신유학(新儒學)의 일원론적 세계원리를 불교에서 파생해 온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부정에 온힘을 기우린다.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과 실체[自立者]와 속성[依賴者]의 개념구별의 도입을 통해서, 신유학에서 말하는 <이>(理)나 <태극>(太極)은 그 자체가 실제 사물을 만들어내는 사물 밖에 있는 “독립된 운동인”(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단지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물에 종속되는 “속성”(依賴者)일 뿐, 독립적인 실체(自立者)가 아니라고 논박한다. 만약 그것이 초월적인 독립적 존재라면, 그것은 서양의 <신>(神)의 개념과 마찬 가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마다에 내재하는 <이>(理)는 결코 <신>일 수 없으니, 결국 개체에 내재하는 ‘형상’(Form)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중국의 신유학자들이 얼마나 설득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리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토미즘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자연이성이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주교의 교리를 중국의 문인들이 잘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했기 때문에, 유교적 토양에 천주교교리의 조화적 적응, 말하자면 천주교교리에 “중국 옷을 잘 입힘”(P.A.Rule, p.54)으로써, 여하간 상당한 전교의 성과를 잠정적으로 크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계시종교로서의 천주교의 특성은 인간의 원죄에 의한 유한한 자기한계와, 그로 인한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귀의와 신앙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런 계시종교로서의 천주교교리는

결국 ‘자기계발’에 의한 자기의 인격과 도덕의 완성(“爲己之學”)이라는 중국인들(특히 新儒學)에게 고유한 자율적 학문경향과 배치되기 때문에,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계시종교로서의 천주교교리의 특성에 대하여는 별로 언급하지 않거나 타율신앙적 성격을 상당히 변조하여 중국인들을 설득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신학중심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시될 수 없는 ‘결정적인’ 자기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동서세계관의 기본적 차이에서 오는 이런 문제점은 리치와 그의 뒤를 이은 예수회선교사들의 잠정적인 선교로선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동양적 전통과는 다른 뿌리에서 출발한 계시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라는 근본문제와 심각히 관련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리치의 주요한 한문 저술에 대해서는, 李之藻편, <<天學初函>>, 총6권, 특히 제1권, 學生書局(臺北, 臺灣) 1965년 영인본; 劉俊餘/王玉川공역, <<利瑪竇全集>>총4권, 光啓出版社(臺北, 臺灣) 1986년; [清] 永瑢 등편, <<四庫全書總目>>총2권, 中華書局出版(北京) 1987년(제4판) 영인본; P.M.d'Elia(ed.), *Fonti Ricciane*, 3 v. Rome 1942-49 등이 있다. 그밖에 리치 연구에 대한 주요연구문헌으로는, J.Bettray, *Die Akkomodationsmethode des P. Matteo Ricci, S.J. in China* (AnalGreg 76;1955); H. Bernard, *Le Père Mathieu Ricci et la société chinoise de son temps*, 2 v. Tientsin 1937; J. Gernet, *Chine et Christianisme*, Paris:éd. Gallimard 1982; V.Cronin, *The Wise Man from the West*, New York 1955 (이기반 역, <<서방에서 온 현자>>, 분도출판사 1989년); W.Franke,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9-1644*, 2 v. New York 1955; Paul A. Rule, *K'ung-tzu or Confucius: The Jesuit 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Sidney(Allen & Unwin) 1986; 孫尚揚, 明末天主教與儒學的交流和衝突, 臺北(文津出版社) 1992.